



즉시 배포용: 2021년 10월 20일

KATHY HOCHUL 주지사

## HOCHUL 주지사, 온라인 안전 패키지 법안에 서명

**법안(S.623/A.2206)에 따라 뉴욕주 사이버 불링 피해를 조사하고 이러한 피해 해결을 위한 조치를 모색하는 태스크포스 설치**

**법안(S.2956A/A.324)에 따라 2급 강요죄의 정의가 사적 이미지의 생산 또는 배포를 포함하도록 확대**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온라인 안전 관련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법안(S.623/A.2206)에 따라 뉴욕주 사이버 불링 피해를 조사하고 이러한 피해 해결을 위한 조치를 모색하는 태스크포스를 설치합니다. 법안(S.2956A/A.324)에 따라 2급 강요죄에 나체 이미지의 생산 또는 배포를 포함하도록 법적 정의를 확대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술 발전에 따라 뉴욕 주민을 온라인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뉴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법에 서명하여 뉴욕 주민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온라인 활동을 즐길 수 있게 보장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법안 S.623/A.2206에 따라 사이버 불링 피해를 조사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태스크포스를 설치합니다. 태스크포스는 사이버 불링 실태 파악, 예방법 권고, 주정부 자원을 이용해 성인 및 아동 불링 피해자 지원 방법 확인 등의 업무를 맡습니다. 대상에는 학교 외의 공간에서 불링 피해를 입는 아동이 포함됩니다.

법안 S.2956A/A.324에 따라 2급 강요죄에 사적 이미지의 생산 및 배포를 포함하도록 법적 정의를 확대합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신체 또는 감정적 강요를 통해 매우 사적인 이미지를 생산하거나 배포하도록 강요한 사람은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Samra Brouk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해자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 발전에 맞추어 우리 법도 발전해야 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번 법안에 서명하여 미성년자 등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구성원을 비롯하여 모든 인터넷 사용자가 강요 받지 않는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Todd Kaminsky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이버 불링은 뉴욕주 전역에서 심각한 문제이며, 우리는 이를 막기 위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제 법안에 서명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이를 통해 우리 십대 청소년들의 피해를 조사하고 사태 극복을 위한 해결책을 모색할 태스크포스를 설치하여 오랫동안 롱아일랜드 및 뉴욕주 전체의 모든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고통을 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Didi Barrett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이버 불링은 지역, 민족, 인종, 종교, 사회 또는 정치적 경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린 청소년들이 받는 피해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모두가 온라인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팬데믹 기간에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특히 전국 불링 예방의 달(National Bullying Prevention Month)을 맞아 이번 법안에 서명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지원을 통해 부정적인 추세를 반전시키고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Kenneth Zebrowski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적 착취는 매우 심각한 범죄이며, 개인이 강요를 통해 받아 타인을 조종하고 범죄에 악용되도록 매우 사적인 이미지를 만들게 하는 행위입니다. 형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범죄는 종종 기소되지 않고, 끔찍한 범죄의 가해자들을 놓아주었습니다. 이번 법안은 강요법에 사적 이미지 생산 또는 배포를 분명히 명시함으로써 이러한 사각지대를 없앱니다. 이처럼 의미 있는 법안에 서명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Jennifer Becker 법무 차관 겸 리걸 모멘텀(Legal Momentum) 선임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적 착취와 강요는 늘어나고 있는 학대의 한 종류이며, 기술과 소셜 미디어가 성장하고 접근성이 늘어남에 따라 매우 성장하고 있습니다. 강요를 받아 착취한 성적 이미지를 범죄로 취급하는 것은 뉴욕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며, 다른 주들도 이러한 모델을 따를 것입니다. 많은 성적 착취의 피해자는 젊은 여성이며, 온라인에서 표적이 되어 강요를 받고 성적 이미지를 만들어 전송함으로써 길고 끔찍한 학대의 악순환에 갇히게 됩니다. 뉴욕 주민은 Hochul 주지사와 Brouk 상원의원, Zebrowski 하원의원 덕분에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